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 주간충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창도부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진홍용 편집: 양재용

## 구약성경 속의 예수님을 만나요!

2011년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

### 예수 그리스도는 참포도나무다

김성관 위임목사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곁을 떠난다는 생각 때문에 근심하였다. 그러자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셨다(요 14:1~3). 또한 보혜사 ‘성령님’이 도우

실 것(요 14:16,26)과 참 평안(요 14:27)을 약속하셨다. 이윽고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셨다. “나는 참포도나무요”(요 15:1). 참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은 농부시다(요 15:1). 그리고 우리는 가지다. 가지 된 우리는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다(요 15:2). 이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아주 쉽게 가르쳐주셨지만 중교지도자들은 깨닫지 못했다. 이들은 하나님을 회오산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연구했지만 정작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밝혀 주는 참 빛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요 1:9). 예수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외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니라”(요 6:32).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모세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일시적인 만나가 아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참 떡임을 가르쳐주셨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다(요 14:6).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다(요 10:10). 예수님은 참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다. 오직 예수님과의 관계만 중시하자. 예수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를 가꾸어 열매 맺도록 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참포도나무 이시다. 아멘.

이번 여름에도 어김없이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열립니다. 사실, 지난 6월부터 각 부서의 여름수련회가 시작되어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교회학교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학교와 중고생들을 위한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데 이번 여름성경학교의 주제는 ‘구약성경 속의 예수 그리스도’(창 1:1)입니다. 이는 지난 겨울성경학교의 주제였던 ‘성경 속의 예수 그리스도’의 후속 주제로, 앞으로도 계속 성경학교를 통해서 성경 속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있으며, 주일 및 주간,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마음을 흘리고 계십니다.

‘구약성경 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각 가정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합니다. 방학을 맞아 많은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일단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오, 중고생들의 경우 학원 수업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모님들의 지혜로운 조율을 바랍니다. 성경을 집중해서 배우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딤후 3:16).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풍만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도록 많은 격려와 뜨거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2011년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

‘구약성경 속의 예수 그리스도’(창 1:1)

| 부서   | 일시               | 장소         |
|------|------------------|------------|
| 고등부  | 7월 25일(월)~27일(수) | 충현기도원      |
| 영아부  | 7월 26일(화)        | 제1교육관 110호 |
| 유아부  | 7월 26일(화)        | 제1교육관 201호 |
| 유치부  | 7월 26일(화)        | 제1교육관 207호 |
| 초등1부 | 7월 26일(화)        | 제1교육관 407호 |
| 초등2부 | 7월 26일(화)        | 제1교육관 507호 |
| 중등부  | 8월 1일(월)~3일(수)   | 충현기도원      |
| 청년2부 | 8월 12일(금)~13일(토) | 충현기도원      |
| 사랑부  | 8월 13일(토)        | 복지관 지하층    |
| 청년1부 | 8월 14일(주)~15일(월) | 충현기도원      |

# WHAT IS THAT TO YOU?

*Jesus answered, "If I want him to remain alive until I return,  
what is that to you? You must follow me."*

*(John 21:22)*

In today's Bible verse Jesus responds to Peter's inquiry concerning John (the beloved disciple) with a question and command. Between Peter and John, chapter 21 is centered on Peter. Peter gave up everything to follow Jesus for more than three years. When Jesus was taken captive, Peter denied Him three times. After Jesus died and resurrected, Peter went fishing. Jesus came to Peter's fishing spot in His resurrected body and helped him catch some fish. They ate breakfast together, and then Jesus gave Peter his ministry orders and information about his death. Peter clearly understood his calling, but while looking at John, his competitor under Jesus, he wanted to know what Jesus was going to call John to do. How often do we look around at people, places, and even things and want to know what Jesus is going to do with them? As Christians, we need to remember that our ministry is strictly to follow Jesus.

Whenever those closest to us drift away from Jesus we tend to ask Him what is going to happen to them. Whether it is a spouse, child, parent, or dear friend who reads the Bible all the time but doesn't really practice or believe what is inside it, we wonder what is going to happen. The failure of loved ones is a very sensitive area. Please remember that you are not accountable for the sins of others, "So then, each of us will give an account of himself to God"(Rom. 14:12). Everyone must stand before God and be judged. The person closest to you may be falling away or even keeping you from Christ. Your responsibility is to look past other's failures to Christ. If others fail or fall, what is that to you? You must only focus on Jesus Christ and follow Him alone.

Whenever we are hurt by other Christians we tend to ask Jesus what is going to happen to them. Many good Christians can be cruel. The cause of Christ can be harmed by careless tongues. Wounded believers can struggle with bitterness, even when your intent was blessing. The casualties of caustic remarks can be found everywhere

within the church. Gossip groups are dangerous. See how gossip distorted the situation in today's message, "Because of this, the rumor spread among the brothers that this disciple would not die. But Jesus did not say that he would not die; he only said, "If I want him to remain alive until I return, what is that to you?"(Jn. 21:23). The words that come out of our mouth can be very powerful, "but no man can tame the tongue. It is a restless evil, full of deadly poison. With the tongue we praise our Lord and Father, and with it we curse men, who have been made in God's likeness. Out of the same mouth come praise and cursing. My brothers, this should not be"(Jam. 3:8-10). How often we get discouraged seeing the effects of gossipers and hearing the wrong words spoken. When others falter in their speech, what is that to you? You must only focus on Jesus Christ and follow Him alone.

Whenever we envy another's position, talent, financial status, success, speaking ability, or whatever; we are in trouble. Peter and John went back and forth with who was better and who would sit on Jesus' right hand or left hand kind of stuff. Peter affirmed that he would feed Jesus' sheep, but he still wanted to know what John was going to do. He understood that he would die a martyr's death, but he wanted to know how John would suffer. Jesus told him to forget that line of thought and just follow Him. God often chooses to use those who think they have little to offer, and those who others think have little to offer. Your worldly status and abilities have little to do with God's work. Next time you find yourself drifting into envious territory, ask yourself what is that to you! Your job is to follow Jesus, no matter what road He chooses.

My dear friends, now that we have considered this sensitive area of life, perhaps you've found certain points of failure. It is time to face the Lord's question: What is that to you? It is time to heed the Lord's command: Follow Me! Amen. ㄴ

# 네게 무슨 상관이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나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요한복음 21:22)



김성관 목사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요한(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제자)에 관한 베드로의 질문을 들으시고, 한 질문과 한 명령으로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와 요한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며 3년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혀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는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가 고기를 잡던 곳까지 와서 고기 잡는 것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들은 함께 아침을 먹고, 그 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가 해야 할 사명과 그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받은 소명을 확실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경쟁자이던 요한을 보았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요한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알고 싶었습니다. 우리 또한 너무나 자주 사람, 장소, 심지어 여러가지 일들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궁금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사명은 오로지 예수님만 따르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린 마음을 안고 공공델 수 있습니다. 헌당에 상쳐받은 희생자들은 교회 안 어디에서나 발견됩니다. 수군대는 무리들은 위험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헌당이 상황을 어떻게 왜곡시키는지 보여줍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니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나 하신 것이리라”(요 21:23).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말이 크나큰 힘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데도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약 3:8~10). 수군대는 사람들이 저지른 일과 그들이 잘못 내뱉는 말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낙심합니까. 그러나 그와 같은 사람들이 수군거린들 그것이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만 따라가십시오.

##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 방황할 때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멀어져 방황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주님께 묻는 경향이 있습니다. 배우자, 자식, 부모, 친한 친구들이 모두 항상 성경을 읽어오 말씀을 실제로 믿거나 실천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 합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들의 실패는 매우 민감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 변명해야 할 책임이 여러분에게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롬 14:12).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반하거나 심지어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책임은 타인이 저지른 실패 너머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실패하거나 실수한 것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들을 부러워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지위, 은사, 재정 상태, 성공, 연변 등 그 무엇이랄지 부러워할 때 우리에게 문제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둘 중에 누가 더 나은 사람인지, 또 누가 예수님의 우편 또는 좌편에 앉게 되는지 따위의 문제 때문에 갈팡질팡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양을 먹이게 될 것임을 확신했지만, 그럼에도 요한이 어떻게 될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순교해야 할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요한도 어떻게 통통을 받을지 알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와 같은 생각은 있어버리고 오직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남들이 볼 때 무능한 자들을 불러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의 세상적인 지위와 능력들은 하나님의 사역과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 번에, 자신이 질투에 빠져든다고 생각될 때 여러분은 그것이 자기 자신과 무슨 상관이라고 물으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길로 부르시든지 여러분이 할 일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 다른 그리스도인이 상처를 주었을 때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처를 받을 때마다 우리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주님께 묻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선한 그리스도인들도 잔인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다가도 남이 무심코 던진 말에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축복의 말을 건넸는데,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상처를 받아 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의 민감한 주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자신이 실패했던 부분들을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나?”라고 물으십니다. 이제 주님의 명령에 청종하실 차례입니다. “나를 따라라!” 아멘.

## 성경 파노라마



## 구약의 제사

구약의 각 제사들은 창조주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창조 상태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현재 그 관계를 단절시킨 원인이 죄의 해결이 먼저 요청된다는 원리를 보여준다. 그리고 그 죄의 해결을 위해서 에덴동산에서의 언약에 따라 죄의 책임을 지고, 그 죄를 범한 자가 생명의 근원이 되는 피를 흘려야 함을 보여준다(창 2:17). 그러나 각종 제사법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인간보다 열등한 동물의 반복되는 희생 제사를 구정한 이 희생 제사법은 동일한 원리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한다. 구약의 제사는 비록 세부 내용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한 신앙 고백을 기본 원리로 한다. 이는 또한 구현받은 성도의 감사와 찬양, 간구로 이루어지는 신약의 예배와도 동일하다.

### 제사의 방법에 따른 구분

|    | 제사법                                                                                     | 해당 제물                                                                                                           | 해당 제사                                                                                                         | 예표적 의미                                                                                                                                                           |
|----|-----------------------------------------------------------------------------------------|-----------------------------------------------------------------------------------------------------------------|---------------------------------------------------------------------------------------------------------------|------------------------------------------------------------------------------------------------------------------------------------------------------------------|
| 화제 | 경배자가 가져와 인수하고, 제사장이 잡고 다들은 희생 제물을 단 위에서 불사름(레 1:6-9, 3:3-9). 이때 그 피는 성막 기구 및 번제단 주위에 뿌림 | 흠 없는 수소, 암소, 수양, 양양, 수염소, 양염소, 산비둘기, 참비둘기, 고운 곡식가루, 기름, 유향 등의 모든 제물(레 1:3, 10, 14, 2:1-2, 3:1, 6, 12, 4:23, 28) | • 번제(출 29:18, 25; 레 1:9, 13, 17)<br>• 소제(레 2:1~16)<br>• 화목제(레 3:3, 5, 9)<br>• 속직제(레 5:12)<br>• 속건제(레 6:17~18) | •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을 의미함(요 1:29, 36; 고후 5:21)<br>•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속직을 위해 피 흘리심을 상징함(마 26:28; 히 9:12~14)<br>•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 전체를 바쳐 희생당하심을 상징함(마 27:27~50) |
| 요제 |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화목 제물의 가슴 및 곡식단을 높이 들어 앞뒤로 흔들어 바침(출 29:24, 26)                             | 화목 제물의 가슴, 첫 곡식단(레 23:15), 첫 이삭의 떡(레 23:20), 레위인(민 8:11~15)                                                     | • 화목제(레 7:30)<br>• 속건제(레 14:12, 14)<br>• 땅의 처음 익은 곡식을 바칠 때                                                    | •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물로 바쳐짐을 의미함(골 1:22; 히 9:24~25)<br>•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양식으로 성도에게 주어지심을 상징함(요 6:33~58; 롬 8:32)                                                       |
| 거제 | 제사장이 희생 제물을 두손으로 높이 쳐들었다가 내림                                                            |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 타작 미양의 곡식, 십일조, 포도주, 기름 등(레 7:32; 민 15:20)                                                       | • 화목제(레 7:14, 22)<br>• 땅의 첫 소산물을 드릴 때<br>• 십일조를 드릴 때<br>• 전리품을 드릴 때                                           | •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주실 것을 의미함(요 6:27; 롬 8:32)<br>•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생명이자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는 것을 상징함(사 23:1~6; 사 43:1~3)                                                 |
| 전제 | 포도주나 독주를 다른 제물과 함께 부어 드림(민 28:7)                                                        | 포도주, 독주(레 23:13; 민 28:7)                                                                                        | • 번제(출 29:40~41)<br>• 소제(레 23:13)<br>• 화목제 등에(레 23:19)                                                        | •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봉사하심을 의미함(마 26:38~44)<br>•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위해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하심을 상징함(마 27:46~51)                                                                |

### 제사의 목적에 따른 구분

|     | 성격    | 목적                              | 특징                                                  | 의미                            | 그리스도와와의 관계                       | 관련성구                                        |
|-----|-------|---------------------------------|-----------------------------------------------------|-------------------------------|----------------------------------|---------------------------------------------|
| 번제  | 자원·의무 | 일상의 신앙 고백과 경배                   | 흠 없는 제물을 준비, 가족을 제외한 제물 전체를 불살라 드림                  | 헌신자가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헌신함        | 그리스도의 죽음은 완전한 헌신의 모범             | 레 1:3~17, 6:8~13; 롬 12:1~2; 빌 2:5~11        |
| 소제  | 자원    | 하나님께 영광과 충성을 바치는 표로 순수하고 온전한 순종 | 피가 없는 유일한 제사로 고운 곡식가루를 기름, 유향, 소금 등과 섞어 불살라 드림      |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인식함    |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 | 레 2:1~16, 9:16~17; 히 4:15; 계 12:11          |
| 화목제 | 자원    | 하나님과과의 특별한 친교                   | 제사 후 경배제도 제물을 분배 받음, 드리는 동시에 따라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로 구분됨  | 하나님과과의 화평과 교제                 |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이 친교할 수 있는 유일한 길    | 레 3:1, 7:12, 16; 롬 5:1; 골 1:20              |
| 속직제 | 의무    | 무의식적인 범죄와 부정함과 허물을 사함 받음        | 각 사람의 신분, 지위(제사장, 이스라엘은 회중, 족장, 평민, 극빈자)에 따라 제물이 다름 |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됨과 죄의 치명적 결과 |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방법임 | 레 4:1, 13, 22, 8:14~17; 요 1:29; 요일 1:7      |
| 속건제 | 의무    | 하나님과 이웃을 적대관계에 놓이게 한 죄의 해결과 보상  | 범죄한 대상(하나님, 사람에게 따라 제물이 다르며, 범한 물건의 1/5를 더 냄)       | 불의하고 불공평한 일을 예방하고 보상함         |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의 치명적인 파괴성을 제거함       | 레 5:1~4, 15~16, 7:1~7; 사 53:4~6; 벧전 2:21~24 |

## 한 손엔 전도지 입술엔 복음

캄보디아 선교를 떠나기 전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 '주님, 이번 선교에서 영육이 약한 자를 만날 수 있게 해 주세요!'라고. 돕는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다. 어떤 집에 가니 연약한 육체를 가진 사람이 있었다. 예수님이 영혼을 사랑하셨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였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 영혼이 구원받고 고침 받게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면 온 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나 주께서 행하신 일을 생각하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한 집 건너 또 한 집으로 향할 때면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영혼들이 달려왔다. 한 손엔 전도지 입술엔 복음...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찬양을 같이 부르고 율동을 하면서 그들과 한 마음이 되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

조복춘(집사, 4교구)

## 복음의 진리

순간순간 주님께서 동행하시어 작은 믿음과 기도에도 응답하시며 주님의 지팡이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영혼에 대한 크신 긍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탐험을 모두 영적 전쟁이 거센 가운데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믿는 '누구든지 알지 못하는 신'이 다른 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보내어 주신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복음의 진리가 네팔 땅에 퍼질 수 있도록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심지승(성도1부)

## 회개하고 나에게 다시 나아오라

기도와 말씀에 무관심이 못하고 교만한 마음이 너무 컸던 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선교지에서 이런 저를 철저히 부끄러웠습니다. 첫날 사역을 통해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이 간절하지 못함과 사랑하지 못함을 느꼈습니다. 저녁 평가회에서 "회개하고 나에게 다시 나아오라"는 음성이 들렸고,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날 밤 다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어 그 다음 날 사역부터는 정말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진정으로 영혼들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이번 사역에서는 복음을 전해 들었던 영혼들을 천국에서 꼭 만날 것을 믿어 의심치 않게 되었습니다.

이다영(대학부)

## 새신자로서 부족한 것도 많지만

삼과 죽음을 오가는 중환자실에서 퇴원한 후 가족들의 강권에 가까운 권유로 주님 앞에 온 지 1년이 경과한 때였습니다. 팀장 집사님으로부터 선교 사역에 참가하지 않겠느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평소 단기선교 사역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이었고, 훈련 과정과 사역 기간 중의 직장 사정이 예측 되지 않아 일단 사무실 사정을 보아 생각해 보겠노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사무실에서의 당장 긴급한 현안은 보이지 않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한 몸인데 이 사역도 주님이 예비하신 부름이라 여기고 또 사무실에서의 일도 주님이 예비하신 대로 진행될 것이라 믿고 사역에 동참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방에서 오가지만 1주일에 평균 2번의 훈련이 있었고, 사역 기간 중에도 사무실에 별 문제 없이 무사히 업무를 마칠 수 있게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땅 끝까지 말씀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새신자로서 부족한 것도 많고, 언어 소통도 원활하지 못했지만 자신을 부인하고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온 힘을 기울이고 모자란 것은 주님이 예비해 주실 것이란 믿음으로 선교에 임하였습니다. 팀원들이 늘 찬양 부르며 경건하게 전도하는 모습에 현지 운전 기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도 보았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겸손, 명예, 재물과 같은 세상의 일과 단절하여 오직 주님만을 생각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주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기존현(성도, 7교구)

##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요!



## 캄보디아 (CAMBODIA)

개요 : 인도차이나 반도의 남서부에 있는 나라  
수도 : 프놈펜 (Phnom Penh)  
언어 : 크메르어  
기후 : 열대몬순 기후  
종교 : 소승불교 95%

### 1.특징

- 캄보디아는 인도차이나 반도의 남서쪽에 위치하며, 주로 많은 강이 교차하는 저평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태국과 접해 있는 북부 국경 지역과 남서부에만 산지가 약간 있다.
- 캄보디아 총 인구는 약 1,400만 명으로 이중 90%가 토착 크메르족이다.
- 종교의 자유는 있으나 2007년 7월부터 법적으로 선교가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큰 제재는 없었다. 캄보디아인은 기독교를 서양 종교라며 거부하였으나 학생들과 지식인층에서 기독교에 대하여 개방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성경은 1954년에 크메르어로 번역되었다.



### 2.선교 진행 상황

- 우리 교회에서는 매년 많은 인원이 캄보디아에 단기선교를 다녀오고 있다. 올해에도 가장 많은 팀이 지원하여 6개 팀이 선교를 마쳤고, 13개 팀이 캄보디아 단기선교를 위해 훈련 중이다.

### 3.기도 제목

- 캄보디아는 2백만 명이 대량 학살당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당한 전국민이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치유 받도록
- 복음의 빛이 이 사회의 타락뿐만 아니라 개인과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 우상 숭배가 만연한 캄보디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 단기선교를 준비하는 중견의 성도들이 준비된 영혼을 만날 수 있도록



### 현재 지역 중언선교팀 (2개 팀)

| 기 간                   | 팀       | 팀 장 |
|-----------------------|---------|-----|
| 7월 14일(목) ~ 7월 22일(금) | 6교구 2팀  | 최용길 |
| 7월 15일(금) ~ 7월 23일(토) | 14교구 2팀 | 임희준 |

###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4개 팀)

| 기 간                   | 팀      | 팀 장 |
|-----------------------|--------|-----|
| 7월 18일(월) ~ 7월 26일(화) | 5교구 2팀 | 김육권 |
| 7월 19일(화) ~ 7월 27일(수) | 7교구 2팀 | 이도현 |
| 7월 20일(수) ~ 7월 28일(목) | 7교구 3팀 | 박석선 |
| 7월 21일(목) ~ 7월 29일(금) | 2교구 2팀 | 최규태 |

###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4개 팀)

| 기 간                  | 팀       | 팀 장 |
|----------------------|---------|-----|
| 7월 4일(월) ~ 7월 12일(화) | 17교구 1팀 | 박찬욱 |
| 7월 4일(월) ~ 7월 12일(화) | 교회직원 1팀 | 김아현 |
| 7월 5일(화) ~ 7월 13일(수) | 20교구 2팀 | 강석하 |
| 7월 7일(목) ~ 7월 14일(목) | 사목직원 1팀 | 김철남 |

청지기후련

복음은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에 관한 것

‘왜 복음이 감추어졌는가?’라는 주제를 처음 접하고서 사실 저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복음은 누구나 보고 읽을 수 있게 성경에 자세하게 다 써여 있고, 요즘은 굳이 성경을 읽지 않고 TV나 라디오, 기독교 방송만 틀어도 너무나 손쉽게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완벽하게 노출되어 있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복음인 줄 알았는데 도대체 복음이 어떻게, 왜 감추어졌다는 것인지 궁금증을 가진 채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며, 그리스도가 빠져 있는 설교는 복음이 아니라는 말씀을 듣고서,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그 속에서 정작 예수님의 십자가는 빠져 있는 현실에 대해 목사님께서는 왜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는지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올바르게 살고 훌륭한 인격자가 되어 하나님께 나라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나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 솔로몬의 지혜, 요셉의 성공, 다윗의 믿음을 구하는 것 역시 복음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인간받고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이라도 더 진리를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정말 단순하고 간단한 사실이 바로 복음인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쉽고 명료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교육이나 지식이 부족한 사람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얼마 전 단기선교에서 만났던 수많은 캄보디아 사람들의 순수한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비록 그들이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어도 더러는 글조차 읽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예수님을 알기 원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천국과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해 주셨을 것이란 확신이 들어서 정말 기뻐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렇게 말하는 저 자신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섭고 싫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복음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불쌍한 자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 때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말씀 속에 감추인 진정한 보물을 깨닫지 못했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것이 제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저를 찾아와주셔서 만나주시고, 제가 이제부터라도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기를 소망하게 된 이후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차츰차츰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정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복음을 깨달을 수 없는 것을 누구보다 제가 절실히 느끼고 있었기에, 복음이 가려진 것은 복음이 모호하고 어려운 것이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전적으로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없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럼에도 오늘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복음을 이해할 수 없다고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현실을 생각하니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에 걸린 뱀뱀을 쳐다본 자살만이 살아났듯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이심을 모두가 꼭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재발 더 이상 세상의 신들로 인해 복음이 가려지지 않기를, 앞으로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 그 안에서 행하며 그 안에서 뿌리를 박게 되기를, 민세와 민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구원의 비밀이 이제는 땅 끝까지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아멘.

안유리(집사, 3교구)

복음의 진수

받은 은혜의 감격은 복음 중의 복음이었고 말씀 중의 말씀으로 열변을 넘으신 보혈의 토혈을 통하여 복음의 진수를 깨닫게 되었다. 목사님께서 평소 그토록 의지했던 십자가 복음을 왜 그토록 집요하게 외치어만 했는지를 깨닫는 참으로 충격적인 시간이었다. 이번 집회 2시간 동안 이 왜 그리 짧게만 느껴지던지. 한 말씀 한 말씀이 평소에도 들던 말씀이었지만 너무나 새롭고 정금 같이 귀하게 가슴에 새겨들었다. 늦게 깨달은 것이 너무나 부끄럽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너무나 다행이었다는 감격에 감사하기도 했다. 말씀의 홍수 속에 만나게되던 켜져버렸던 나의 심령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결단코 복음을 깨닫을 수 없다’는 말씀과 ‘어서 돌아오오’ 찬양을 통하여 탕자인 나를 발견했다. 간절히 회개와 회개에 있었다.

무 명(성도, 18교구)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다

최 많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축복인데 왜 복음이 감추어졌을까? 의구심도 잠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려는 불신앙도 문제이지만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채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죄가 하나님께 엄청난 ‘악’이라는 사실이 나의 믿음생활을 점검하고 회개하는 계기가 되었다. 독사의 독으로 가득 채운 어둠의 그늘, 감싸보려 불평이 더 많았던 우리의 삶이 아니었나 싶다. 또한 영적으로 처절한 빈곤에 빠져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내 영혼의 갈급함을 느낄 때 비로소 해갈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다는 확신이 서게 됐다. 우리가 버려야 할 자존심, 자기의 집, 인생의 자랑, 이러한 이종 생활들이 나도 모르게 죄성을 키우고 있었구나! 자각하며 회개고 고백하고 회개했다.

최준환(집사, 17교구)

예전에는 이해하려고 무지 노력하였지만

이번 청지기후련 때는 생명이 넘치는 은혜의 말씀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은혜를 받고, 기도로 준비하고자 권하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복음이 감추어졌는가?’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면, 예배당 밖에서 앉아서 하므로 퇴근을 조금 앞당겨서 일찍 교회로 출발했었습니다. 하루 종일 내리는 비 때문인지 교통체증이 너무 심했지만, 예상대로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으로 속속 모여들어 앞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목사님의 설교를 이해하려고 무지 노력하였지만, 그 깊은 뜻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마음을 다잡아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하신 목사님의 말씀을 한 문장도 빠뜨리지 않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다짐하며 청지기후련에 참석했었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은 자에게만 들리는 복음, 복음을 전하는 자는 자신이 먼저 복음을 받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귀에 쏙쏙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게 많은 청지기후련에 참석하였어도 몰랐던 사실, 기묘하게도 하늘 나라 찬송 구절이 그 다음 선포할 말씀을 위한,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 수 있도록 하는 기도의 내용이었다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믿어 빈 자에게 내리어 주소서’, 왜 복음이 감추어졌나 말씀을 알도록 <오!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이번 청지기후련은 특별한 경험이었습디다.

박경연(집사, 15교구)

## 영유초등도서실

2011년  
독서감상문대회  
수상작

## 예수님은

〈몸치와 몸치의 믿음 일기〉를 읽었다. 만화로 되어 있어서 몇 번이나 계속 읽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는 죄가 없는 완전한 분이신 걸 알았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무척 사랑해주셔서 항상 기도를 하신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은 점차 때가 되면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재림하시어 살아 있는 모든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해서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형벌로 심판을 하신다고 했다. 정말로 무서웠다.

양유진(초등1부)

## 성경 속의 예수님

나는 항상 이 도서관에 오면 〈파워 바이블〉이란 책을 읽는다. 신약부터 구약까지의 성경 내용이 들어 있는 아주 재미있는 성경 만화책이다. 창세기에 빛과 어둠, 그리고 모든 생물과 모든 물체,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 정말 고마운 존재이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육신의 몸으로 내려 오셔서 친히 우리 대신 십자가를 못 박으신 예수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든다.

염시은(초등2부)

## 성경 속에 빛나는 사람

저는 〈성경 속에 빛나는 사람〉이란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가끔 "귀찮아. 그냥 교회 가지 말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는 머리가 저를 괴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의식하고 욕을 하지만 나의 예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거짓말한 것, 친구를 미워한 것도 죄인데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저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마땅히 때문에 계속 죄 속에 빠져들니다. 머리는 너무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디에서든지 제 옆에 계시고 저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제 마음은 든든하고 행복합니다.

김 술(초등2부)

##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예전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에 감탄하였는데, 이 책을 읽고 놀라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의 강한 믿음을 알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다. 점점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는 것을 주변 친구들을 보면서 느끼는데, 이 책을 읽으면 그 친구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든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변제로 올리는 과정에서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 아브라함처럼 강한 믿음이 없다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바칠 용기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경에서 인상 깊은 인물들을 뽑으려면 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고르겠다.

나도 그의 믿음을 본받기

위해 성경책도 많이

읽고 신앙생활도

충만히 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최민경(중등부)

## 새가족양육부 수료자

## 예수님은 내 안에 살아 계시는 분

✕ 처음에는 결혼을 위해 여자 친구가 다니는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살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지켜주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십자가는 내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희생하신 곳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타인에 대한 이해감과 배려심,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순례〉

✕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오랫동안 섬기던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를 찾아오던 중 친구의 권유로 중언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내가 가야 할 길 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셨기에 지금의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보며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과 여러 목사님들의 은혜로운 말씀이 좋습니다. 모태신앙이어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 왔지만 그동안 내가 애 쓴 것은 신앙생활이 아닌 단지 교회에 왔다갔다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고, 마음으로 부터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표범〉

✕ 교회를 알아본던 중 가까이에 좋은 교회가 있어 자원에서 왔습니다. 예수님은 아나눔을 믿는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내 집을 짓고 가시는 분, 삼십 모든 면에서 풍요를 알게 해 주시는 분입니다. 십자가는 나 내신 죄를 지고 가심,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배려와 인내를 가르쳐주심, 심리적 안정, 경건하고 거룩함의 의미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강민주〉

✕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완전한 하나님, 우

리를 진정으로 이해해 주실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이시며,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전여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대신 죽으신 분이십니다.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며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순종의 사랑,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무언의 복음입니다. 교회에 나와 여러 성도들의 믿음생활을 눈과 몸으로 접하면서 나 혼자만이 약한 외로운 존재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동료 의식과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완영〉

✕ 한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다가 십 년도 지나서 다시 교회를 찾았습니다. 사 회에 첫걸음을 내딛으면서 외로움과 욕심이 앞서서 조금씩만 적이 많았습니다. 그 때문에 한동안 저의 기도제목은 하루 빨리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길, 또는 기도와 영혼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도의 대부분은 의부적인 성공과 목표 성취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최근에 읽은 성경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베드로를 포함한 일곱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려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둠이 밝아 한가운데서 밤새 그물을 던졌으나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다가 어둠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 분이 알려주시는 대로 행하였더니 고기가 153마리나 손쉽게 잡혀 올라오는 놀라운 경이로움이 되었습니다. 물고기는 제가 그토록 소망하던 물질적인 것이 그 어둠을 그분을 볼 수 없게 하는 저의 깊은 믿음을 대변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여러 번 깨지고 넘어지고 그대마다 다시 웃으면서 일어나 마침내 웃을 수 있는 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박기홍〉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번호   | 성명  | 교육과정 | 교구 | 인도자 | 번호   | 성명   | 교육과정 | 교구 | 인도자 |
|------|-----|------|----|-----|------|------|------|----|-----|
| 2579 | 최근교 |      | 11 | 정충현 | 2595 | 이식   | 외선부  | 25 | 황정미 |
| 2580 | 박민욱 |      | 7  | 김정훈 | 2596 | 이상선  | 외선부  | 25 | 정은미 |
| 2581 | 강우진 | 초등2부 | 7  | 송한철 | 2597 | 주홍매  | 외선부  | 25 | 이동은 |
| 2582 | 김진정 | 양육반  | 14 | 홍은기 | 2598 | 이민철  | 예배대부 | 25 | 윤영민 |
| 2583 | 정원아 | 양육반  | 23 | 황희철 | 2599 | 신태호  | 양육반  | 8  | 김필숙 |
| 2584 | 이승희 | 양육반  | 6  | 이희전 | 2600 | 이명숙  | 대학부  | 1  | 유민진 |
| 2585 | 최정민 | 청년1부 | 18 | 김정훈 | 2601 | 그레이스 | 외선부  | 25 | 이윤지 |
| 2586 | 염기태 | 양육반  | 9  | 박정훈 | 2602 | 이명훈  | 양육반  | 2  |     |
| 2587 | 신종진 | 양육반  | 3  | 윤순규 | 2603 | 김희원  | 양육반  | 2  |     |
| 2588 | 박정준 | 양육반  | 9  | 최승민 | 2604 | 이명준  |      | 22 |     |
| 2589 | 조규재 | 양육반  | 9  | 최승민 | 2605 | 조수현  | 대학부  | 2  | 이희선 |
| 2590 | 김시민 | 양육반  | 9  | 최승민 | 2606 | 김민정  | 청년1부 | 11 | 박희철 |
| 2591 | 김다민 | 양육반  | 4  | 김여경 | 2607 | 신현주  | 양육반  | 17 | 정성호 |
| 2592 | 이영권 | 양육반  | 5  | 이득혜 | 2608 | 이효진  | 양육반  | 17 | 조수진 |
| 2593 | 한준경 | 양육반  | 5  | 이득혜 | 2609 | 김상진  |      | 12 | 박승선 |
| 2594 | 최정민 | 청년1부 | 6  | 장우민 |      |      |      |    |     |

